

#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상호인용관계 분석\*

## Citation Analysis of Scholarly Journal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Field in Korea

김흥렬 (Hong-Ryul Kim)\*\*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유력 학술지간의 상호 인용관계를 바탕으로 영향지수, 즉시성지수, 피인용반감기, 자기인용비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에 발행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4종의 학술논문 252건에서 인용한 인용문헌 9,329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주요 학술지의 인용문헌 비율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20.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8%, 정보관리학회지 17.0%의 순으로 나타나 국내 학술논문 생산에 주요 학술지 논문의 활용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피인용반감기는 정보관리학회지가 4.25년,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5.87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5.40년,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3.57년으로 나타나 비교적 최신논문을 인용하고 있었으며, 영향력 지수는 0.47~0.67로 나타나 타 주제 분야 학술지에 비해 낮은 지수를 보였다.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impact factor, self-citation, immediacy index and cited half-life through citation analysis of scholarly journals of LIS field in Korea. This study was analysed the 9,329 references cited in Korean scholarly journal of LIS field. As a result, it analyzed that the articles of Korean LIS journal among the cited references in scholarly journal of LIS field in Korea is very insignificant. In other words, the percentage of citations was observed 19.1% i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KSLIS), 20.2%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LIS), 17.0%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KOSIM), 18.8% in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BIBLIA). Also, the cited half-life was analysed 5.87 years in KSLIS, 5.40 years in KLIS, 4.25 years in KOSIM, 3.57 years in KBIBLIA. And Impact factor has been found to be very low compared to journals of other fields.

키워드: 인용 분석, 영향력지수, 피인용반감기, 즉시성지수, 문헌정보학, 학술지  
citation analysis, impact factor, self-citation, immediacy index, cited half-lif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larly journal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전주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hykim505@jj.ac.kr)

■ 논문접수일자: 2015년 11월 29일 ■ 최초심사일자: 2015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15년 12월 14일  
■ 정보관리학회지, 32(4), 7-27,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4.007]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술논문의 생산은 선행연구와 각종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거나 참조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술논문의 생산에 활용된 각종 문헌을 참고문헌(reference) 혹은 인용문헌(citatio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논문이나 문헌사이에 특정한 주제나 관점을 공유하거나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인용문헌을 특수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논문간의 공식적이며 분명하게 연구하는 도구로 지칭하기도 하였다(김태수 외,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인용은 인용된(cited) 문헌의 일부분이나 특정 관점이 인용하는(citing) 문헌의 일부분이나 관점에서 많은 관련성을 지니게 하는 매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용된 문헌과 인용한 문헌간의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주제적인 측면까지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이다. 인용분석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근거 중 하나이며, 저자들은 인용을 통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인용학자인 Martyn(1964, 1975)과 Cronin(1981) 등에 의해서 발전하여 왔다(정경희, 1999). 인용분석은 Gross와 Gross(1927)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도된 이후 방법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인용분석은 이용자연구, 과학사연구, 특정분야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연구, 과학적 영향평가 및 생산성 평가 측정, 정보검색, 장서개발, 특정분

야의 문헌형태나 이용형태의 특징 해석, 연구자의 연구동향 파악 등에 유용하게 응용되고 있다(최상기, 1996). 우리나라에서도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많은 주제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학술지의 영향계수와 즉시성지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KCI의 지수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특정 주제분야의 핵심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상호간의 인용관계와 인용지수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인용은 주요 학술지 4종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유력 학술지 4종의 인용관계와 인용지수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에 발행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 4종(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서 수록한 학술논문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인용문헌 가운데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이들 학술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인용비율, 즉 전체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국내 학술지의 비중, 그리고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상호간의 인용관계 및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향지수, 즉시성지수, 그리고 피인용지수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인용문헌의 출판나이를 분석하여 피인용문헌의 반감기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 2. 선행연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인용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는 이들 연구 중에서 특정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 인용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유경희(1971)가 최초로 과학기술논문에서 수록된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그 수명을 측정하였다. 그 이후에 구자영(1975)은 화학분야의 인용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자들의 정보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한복희(1977)는 원자력분야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였고, 이효숙(1979)은 미생물분야의 인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뒤를 이어 영양학 분야(김석영, 1983), 의학 분야(김태수, 1983; 이윤혜, 2002; 김정옥, 2015), 원예학 분야(김양순, 1984), 전기전자공학 분야(이혜영, 1994), 기계공학 분야(최상기, 1997), 디자인 분야(김순희, 2003), 외식조리학 분야(김현, 2005), 행정학 분야(윤석경, 2007), 문헌정보학 분야(오세훈, 2005; 조인숙, 2007), 해양과학기술 분야(한중엽, 권성국, 2008), 토목공학 분야(남영준 외, 2011), 기록관리학 분야(노현아, 2013) 등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수많은 인용분석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하나의 특정주제 분야 인용분석에서 벗어나 다수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용문

헌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제분야의 인용형태나 인용지수를 비교 제시하거나 각 주제분야 연구자들의 인용행동 차이를 규명하는데 주로 활용하였다.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진식(1997)은 경제학, 문헌정보학, 행정학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문헌 인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들 주제분야 학술지 논문에 인용된 문헌의 자료형태별, 발행지별로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문헌의 인용분포와 이용가치 감소현상인 반감기를 측정하였다.

윤석경(2001)은 정치, 행정, 경제, 경영학, 물리학, 화학, 전자공학, 화학공학분야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과학기술지표체계의 한 분야인 논문분야지표에 대한 연구로 8개 학술지에 나타난 서지사항과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한국학술지에 나타난 학문간 논문의 특성·인용의 특성·지식이전속도를 비교하였다.

김홍렬(2003)은 화학, 전기전자, 건축, 기계공학분야의 인용문헌의 형태 및 출판경과시간에 따른 인용비율과 인용나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문헌의 수명을 측정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국내외 정보원의 의존도를 밝히는 시도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김홍렬(2005)은 의학, 약학, 식품, 미생물, 농학분야 연구자들의 인용문헌 형태와 국외정보의 의존도를 밝히고, 주제별, 형태별 인용문헌의 출판경과시간에 따른 빈도를 통해서 반감기를 측정하여, 생명과학분야 정보서비스 개발과 장서평가 및 폐기와 관련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 확보를 시도하였다.

조현양 등(2005)은 기계, 건축, 전기, 전자공

학 분야 등 4개 공학분야 연구자의 문헌인용 행태 연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학분야 가운데 4개 주요 분야에서 발행되는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인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연구활동 시 이용한 형태별 정보, 평균 인용 건수, 인용된 문헌의 언어, 나이, 그리고 인용된 정보의 반감기에 있어서 분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노현아와 장우권(2013)은 타 학문 분야 간의 문헌 인용 행태 분석을 통하여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과정에서 인용한 타 학문 분야 문헌을 바탕으로 이 분야와 타 학문분야 간의 학술적 상호관계와 주제 의존도를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용 분석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 중에서 문헌정보학분야의 인용 분석 연구도 있지만, 이들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분석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다르다.

### 3. 연구 설계

#### 3.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대표적인 학술지 상호간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인용실태와 영향력을 분석하고 KCI(Korean Citation Index)에 제시된 영향계수(Impact Factor)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상호 간에는 인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전체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문제 2.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상호간 인용관계는 학술지가 추구하는 학문적인 수용과 주제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문제 3.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발행 논문이 논문의 생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문제 4. 인용되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는 발행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최신 논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를 선정하여 각 학술지에서 발행한 논문의 인용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 3.2 연구의 진행

본 연구는 본 연구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를 선정하여 각 학술지의 발행논문에 수록된 인용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등 4종의 학술지로 하였다. 다만, 정보관리연구는 분석대상 학술지는 아니지만, 이들 4종의 학술지에 인용된 경우에는 이들 학술지와 비교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정보관리연구를 포함한 이들 학술지는 기록관리 분

야를 제외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를 총 망라하는 가장 역사가 길며 학술지 발행논문의 건수도 많다. 무엇보다도 이들 학술지는 모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정보관리연구는 2013년부터 국외중심 학술지를 지향하면서 학술지명도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이하 JISTaP』로 개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널의 내용도 순수 문헌정보학분야를 탈피하여 전산학, 정보학 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학술지로 그 내용과 성격이 변모하였다. 또한 실제로 JISTaP의 2014년 발행논문의 인용문헌을 검토한 결과,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JISTaP은 2014년도 발행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분석대상 학술지가 인용한 정보관리연구 및 JISTaP의 논문은 인용문헌수에 포함하였다. 다만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기록 및 기록관리분야에 특화된 학술지로서 문헌정보학분야를 총체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외 3종의 분석대상 학술논문은 2014년도에 발행한 논문 25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논문에 수록된 인용문헌

6,319건을 대상으로 학술지명, 발행연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내 인용문헌이 아닌 인용된 국외 논문일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주요 학술지의 영향력과 이들의 상호간의 인용관계를 알 수 있으며, 국내 학술문헌의 생산에 주요 학술지에서 발행하는 논문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학술지의 상호간의 인용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분석대상 학술지에서의 인용뿐만 아니라 전체 인용횟수를 대상으로 하는 KCI의 영향계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 3.3 연구의 결과

#### 3.3.1 주요 학술지의 인용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주요 학술지 4종(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인용 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2014년도 발행논문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문헌 분석 내용(단위: 건)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발행학술논문	48	75	71	58
전체인용문헌	1,322	1,933	1,576	1,488
인용문헌/기사당	27.5	25.8	22.2	25.6
주요학술지인용문헌	225(17.0%)	370(19.1%)	318(20.2%)	279(18.8%)
기사당학술지인용문헌	4.7	4.9	4.5	4.8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발행한 4종의 학술지에서 모두 252건의 학술논문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52건의 학술논문에서는 총 6,319건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인용문헌은 학술지를 비롯하여,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단행도서, 회의자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관리학회지는 전체 48건의 학술논문을 발행하였고, 48건의 학술논문에서 총 1,322건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사당 27.5건에 해당하며, 1,322건의 인용문헌 가운데 4종의 주요학술지 발행논문은 225건으로 전체의 1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사당 4.7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기사당 27.5건의 인용문헌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인용횟수가 아닐 수 없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75건의 학술논문에서 총 1,933건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사당 25.8건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1,933건의 인용문헌 가운데 4종의 주요 학술지에서 인용한 논문은 370건(19.1%)으로 기사당 4.9건에 해당한다. 이는 기사당 25.8건의 전체 인용문헌에 비하면 정보관리학회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71건의 학술논문에서 총 1,576건의 인용문헌이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학술논문당 22.2건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문헌 1,576건 가운데, 4종의 주요학술지 문헌은 318건(20.2%)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기사당 4.5건에 해당한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58건의 학술논문에서 1,488건의 인용문헌이 조사되었고, 이 결과는 학술 논문당 25.6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4종의 학술지에서 279건의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전체 인용문헌 1,488건의 18.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종합해볼 때, 2014년에 학술 논문을 가장 많이 생산한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나타났고, 전체 인용문헌수 또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93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학술논문당 인용문헌의 평균은 정보관리학회지가 27.5건,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25.8건,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25.6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2.2건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인용문헌의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국내 주요 학술지의 인용문헌 비율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20.2%로 가장 많이 국내 주요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8%, 정보관리학회지 17.0%의 순으로 나타나 정보관리학회지가 가장 적게 국내 학술지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2 정보관리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인용 현황

정보관리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인용문헌 가운데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5종의 학술지에서 인용한 문헌의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발행된 정보관리학회지 논문 48건은 전체 1,322건의 문헌을 인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225건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5종(정보관리연구 포함)의 학술지에서 발행된 학술지 논문이었다. 225건 가운

〈표 2〉 정보관리학회지의 주요 문헌정보학 학술지 인용현황

	13년 KCI 인용순위	인용문헌수	전체 인용문헌 대비 점유율	문헌정보학 학술지 인용건수대비 점유율
정보관리학회지	1	78건	5.90%	34.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	47건	3.56%	2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	44건	3.32%	19.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	44건	3.32%	19.5%
정보관리연구	5	12건	0.9%	5.3%
합계	-	225건	17.0%	100%

데 자기인용이 되는 정보관리학회지에서 인용한 문헌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건,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4건, 정보관리연구 1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관리학회지에서 인용한 78건은 전체 인용문헌 대비 5.9%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건은 3.5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44건은 3.32%, 정보관리연구 12건은 0.9%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인용문헌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인용건수인 225건에 대비한 학술지별 인용 점유율을 살펴보면, 정보관리학회지가 225건 중에서 78건을 인용하여 점유율 34.7%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19.5%, 정보관리연구가 5.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정보관리학회지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가운데 정보관리학회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연구의 순으로 인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관리학회지는 자기인용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회지의 특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보관리학회지는 문헌정보학의 전반적인 영역보다는 정보관리분야 즉, 정보검색, 정보학, 계량정보학, 정보처리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보관리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횟수와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정보관리학회지의 학술논문 생산에 국내 학술지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도 기준으로 KCI에서 제시한 정보관리학회지가 많이 인용하는 학술지 순위와 비교해도 본 연구에서의 순위와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3.3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인용 현황

본 연구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인용문헌 중에서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5종의 학술지에서 인용한 문헌의 현황과 인용문헌 대비 점유율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주요 문헌정보학 학술지 인용현황

	13년 KCI 인용순위	인용문헌수	전체 인용문헌 대비 점유율	문헌정보학 학술지 인용건수대비 점유율
정보관리학회지	3	56건	2.89%	15.1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	118건	6.10%	31.9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	121건	6.24%	32.7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	69건	3.56%	18.65%
정보관리연구	5	6건	0.30%	1.62%
합계	-	370건	19.09	10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발행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논문 75건은 전체 1,933건의 문헌을 인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370건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5종(정보관리연구 포함)의 학술지에서 발행된 학술지 논문이었다. 370건 가운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12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인용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18건, 한국비블리아학회지 69건, 정보관리학회지 56건, 정보관리연구 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 인용한 121건은 전체 인용문헌 대비 6.24%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18건은 6.1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69건은 3.56%, 정보관리학회지 56건은 2.89%, 정보관리연구 6건은 0.3%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정보관리학회지의 분석에서 나왔던 결과와 유사하게 전체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점유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인용건수인 370건의 학술지별 점유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370건의 인용문헌 중에서 121건을 차지하여 32.7%의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18건으로 점유율 31.9%, 한국비블

리아학회지 69건, 18.65%, 정보관리학회지 56건, 15.13%, 정보관리연구가 6건, 1.6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64.6%의 인용 점유율을 보이는 현상을 근거로 이 둘 학회지는 상대적으로 상호 인용관계가 밀접하며, 주제적으로 다른 학술지에 비해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가운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정보관리연구의 순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두 개의 학술지에서 전체의 64.6%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둘 학술지의 상호간 인용관계가 밀접하게 성립되고 있으며, 주제적으로도 서로 관련성이 높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횟수와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학술논문 생산에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KCI에서 제시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많이 인용하는 학술지 순위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순으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3.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인용 현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인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인용문헌 중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5종의 학술지에서 인용한 문헌의 현황과 인용문헌 대비 점유율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발행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논문 71건으로 이들 논문에서 총 1,576건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이 인용문헌 가운데 318건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5종(정보관리연구 포함)의 학술지에서 발행된 학술지 논문이었고 이는 전체의 20.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서 인용한 318건 가운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 발행한 학술논문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

지가 78건, 한국비블리아학회지 52건, 정보관리학회지 47건, 정보관리연구 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자기인용문헌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술지 논문의 생산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술지로 밝혀졌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 인용한 137건은 전체 인용문헌 대비 8.7%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78건은 4.9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52건은 3.3%, 정보관리학회지 47건은 2.99%, 정보관리연구 4건은 0.2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한편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인용건수인 318건의 학술지 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전체의 43.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24.5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32%, 정보관리학회지 14.78%, 정보관리연구가 1.26%의 순으로 점유율이 나타났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는 국내 학술지 가운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여 자기인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제외하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학회지는 상대적으로 인용관계가 밀접하며 주제적으로도 관련성이 높은

<표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주요 문헌정보학 학술지 인용현황

	13년 KCI 인용순위	인용문헌수	전체 인용문헌 대비 점유율	문헌정보학 학술지 인용건수대비 점유율
정보관리학회지	4	47건	2.99%	14.7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	78건	4.95%	24.5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	137건	8.70%	43.0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	52건	3.30%	16.36%
정보관리연구	5	4건	0.26%	1.26%
합계	-	318	20.2%	100%

논문을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횟수와 비율은 다른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학술논문 생산에 있어서도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영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3년도 기준 KCI에서 제시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많이 인용하는 학술지 순위와 비교했을 때 학술지 인용순서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3.3.5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인용 현황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5종의 학술지에서 인용한 문헌의 현황과 인용문헌 대비 점유율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발행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논문 58건에서 총 1,488건의 문헌을 인용하였다. 이 인용문헌 가운데 279건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5종(정보관리연구 포함)에서 발행한 논문이었고 이는 전체의 18.8%

에 해당한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서 인용한 279건 중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발행한 학술논문이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73건, 한국비블리아학회지 65건, 정보관리학회지 44건, 정보관리연구 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때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학술지 논문의 생산에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발행한 논문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차지하는 인용건수 대비 점유율이 32.62%이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점유율은 26.13%이다. 따라서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및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상대적으로 밀접한 인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제적으로도 상호 관련성이 높은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비블리아학회지도 다른 학회지와 유사하게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횟수와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학술논문 생산에도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활용과 영향력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 KCI의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많이 인용하는 학술지 순위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표 5>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주요 문헌정보학 학술지 인용현황

	13년 KCI 인용순위	인용문헌수	전체 인용문헌 대비 점유율	문헌정보학 학술지 인용건수대비 점유율
정보관리학회지	4	44건	2.97%	15.7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	91건	6.13%	32.6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	73건	4.91%	26.1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	65건	4.38%	23.29%
정보관리연구	5	6건	0.41%	2.15%
합계	-	279	18.8%	100%

순서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3.3.6 인용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논문의 발행연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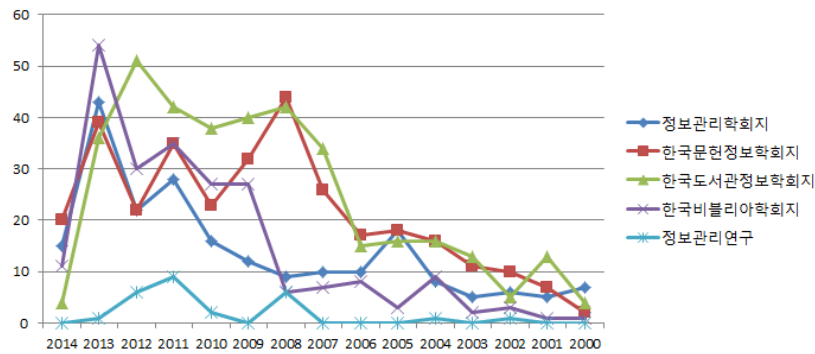
2014년도 발행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4종에 인용된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논문의 발행연도를 분석하였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인용된 문헌정보학 학술논문

의 발행연도는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에서처럼 정보관리학회지는 4종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 모두 225건 인용되었으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334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375건,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230건, 정보관리연구는 총28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인용문헌의 발행연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발행된 지 1년 이내(2013년~2014년)

<표 6> 인용된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논문의 발행연도 분석

인용문헌 출판연도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정보관리연구
2014	15건	20건	4건	11건	0건
2013	43건	39건	36건	54건	1건
2012	22건	22건	51건	30건	6건
2011	28건	35건	42건	35건	9건
2010	16건	23건	38건	27건	2건
2009	12건	32건	40건	27건	0건
2008	9건	44건	42건	6건	6건
2007	10건	26건	34건	7건	0건
2006	10건	17건	15건	8건	0건
2005	18건	18건	16건	3건	1건
2004	8건	16건	16건	9건	0건
2003	5건	11건	13건	2건	1건
2002	6건	10건	5건	3건	0건
2001	5건	7건	13건	1건	0건
2000	7건	2건	4건	1건	0건
1999	1건	1건	1건	3건	0건
1998	4건	2건	0건	0건	0건
1997	2건	1건	1건	0건	0건
1996	2건	3건	1건	0건	0건
1995	1건	1건	0건	0건	0건
1994	0건	1건	1건	2건	0건
1993	0건	0건	0건	0건	0건
1992	0건	1건	0건	0건	0건
1991	0건	1건	0건	0건	0건
1990	1건	1건	0건	0건	0건
1980년대	0건	0건	2건	1건	0건
1970년대	0건	0건	0건	0건	2건
합계	225건	334건	375건	230	28건



〈그림 1〉 인용된 학술논문의 발행연도 추이

의 논문은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230건 중에서 65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관리학회지가 225건 중에서 58건으로 전체의 25.8%,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334건 중에서 59건으로 17.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375건 중에서 40건으로 10.7%의 순으로 최신문헌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내(2009년~2014년)로 확대해보면,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1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가 60.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211건으로 56.3%,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71건으로 5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의 수록논문은 최신논문 위주로 인용이 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인용되는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논문은 대부분 5년 이내의 논문이 과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최신논문을 중심으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7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피인용 반감기

피인용반감기는 누적횟수의 비율이 50%가

되는 연도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이 되며, 학술지의 이용가치가 어느 기간까지 인지를 확인하는 지수가 될 수 있다. 보통 피인용반감기가 빠르면 학문의 변화속도가 빨라 최신문헌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인용반감기가 길면 학문의 변화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며 문헌의 인용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예상할 수 있다. 〈표 7〉은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피인용반감기를 예측하기 위한 피인용횟수와 누적횟수를 보여준 것이다. 이 누적횟수를 활용하여 피인용반감기를 측정할 수 있다.

〈표 7〉에 의하여 측정한 피인용반감기는 정보관리학회지가 4.25년,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5.87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5.40년,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3.57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인용반감기가 가장 짧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최신 논문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가장 오랫동안 학술논문이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감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7〉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피인용횟수 및 누적횟수

인용문헌 출판연도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피인용 횟수	누적 회수(%)	피인용 횟수	누적 회수(%)	피인용 횟수	누적 회수(%)	피인용 횟수	누적 회수(%)
2014	15건	15(6.6)	20건	20(5.9)	4건	4(1.1)	11건	11(4.7)
2013	43건	58(25.7)	39건	59(17.6)	36건	40(10.6)	54건	65(28.2)
2012	22건	80(35.5)	22건	81(24.2)	51건	91(24.2)	30건	95(41.3)
2011	28건	108(48.0)	35건	116(34.7)	42건	133(35.4)	35건	130(56.5)
2010	16건	124(55.1)	23건	139(41.6)	38건	171(45.6)	27건	157(68.2)
2009	12건	136(60.4)	32건	171(51.2)	40건	211(56.2)	27건	184(80.0)
2008	9건	145(64.4)	44건	215(64.3)	42건	253(67.4)	6건	190(82.6)
2007	10건	155(68.9)	26건	241(72.1)	34건	287(76.5)	7건	197(85.6)
2006	10건	165(73.3)	17건	258(77.2)	15건	302(80.5)	8건	205(89.1)
2005	18건	183(81.3)	18건	276(82.6)	16건	318(84.8)	3건	208(90.4)
2004	8건	191(84.9)	16건	292(87.4)	16건	334(89.0)	9건	217(94.3)
2003	5건	196(87.1)	11건	303(90.7)	13건	347(92.5)	2건	219(95.2)
2002	6건	202(89.7)	10건	313(93.7)	5건	352(93.8)	3건	222(96.5)
2001	5건	207(92.0)	7건	320(95.8)	13건	365(97.3)	1건	223(96.9)
2000	7건	214(95.1)	2건	322(96.4)	4건	369(98.4)	1건	224(97.3)
1999	1건	215(95.5)	1건	323(96.7)	1건	370(98.6)	3건	227(98.6)
1998	4건	219(97.3)	2건	325(97.3)	0건	370(98.6)	0건	227(98.6)
1997	2건	221(98.2)	1건	326(97.6)	1건	371(98.9)	0건	227(98.6)
1996	2건	223(99.1)	3건	329(98.5)	1건	372(99.2)	0건	227(98.6)
1995	1건	224(99.5)	1건	330(98.8)	0건	372(99.2)	0건	227(98.6)
1994	0건	224(99.5)	1건	331(99.1)	1건	373(99.4)	2건	229(99.5)
1993	0건	224(99.5)	0건	331(99.1)	0건	373(99.4)	0건	229(99.5)
1992	0건	224(99.5)	1건	332(99.4)	0건	373(99.4)	0건	229(99.5)
1991	0건	224(99.5)	1건	333(99.7)	0건	373(99.4)	0건	229(99.5)
1990 이하	1건	225(100.0)	1건	334(100)	2건	375(100)	1건	230(100)
합계	225	225	334	334	375	375	230	230

〈표 8〉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피인용 반감기(2014년 기준)

학술지명	피인용반감기(년)
정보관리학회지	4.2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7

3.3.8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발행논문수와 인용횟수  
 인용 학술논문의 발행연도를 이용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4종(정보관리연구 제외)

의 발행논문수와 인용횟수를 2년간, 3년간, 4년간으로 구간을 나눠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과 데이터는 〈표 9〉와 같다. 이 발행논문수와 인용횟수는 영향지수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지표

〈표 9〉 문헌정보학분야 주요 학술지의 2, 3, 4년간 발행논문수와 인용횟수

	2년간(2012-13)		3년간(2011-13)		4년간(2010-13)	
	발행 논문수	인용횟수	발행 논문수	인용횟수	발행 논문수	인용횟수
정보관리학회지	112	65	173	93	233	10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30	61	201	96	269	11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50	87	221	129	286	16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5	84	183	119	236	146

가 된다. 물론 연구대상으로 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4종의 영향지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지만, 이들 학술지의 발행논문의 대부분은 이들 학술지에 의해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영향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 3.3.9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영향지수 (IF) 분석

학술지 발행논문과 인용횟수를 활용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4종(정보관리연구 제외)의 영향지수(IF)를 2년간, 3년간, 4년간으로 구간을 나눠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문헌정보학분야 주요 학술지의 영향지수를 알아봄과 동시에 2013년 기준으로 KCI에서 제시한 영향지수(물론 KCI 영향지수는 5종의 학술지 이외의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까지도 계산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0〉은 문헌정

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의 2년간, 3년간, 4년간 영향지수와 KCI(2013년 기준)에서 제시한 영향지수와의 비교를 제시한 것이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4종 학술지 사이의 2년간의 영향지수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0.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0.58,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0.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년간의 영향지수도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0.65로 가장 높았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0.58, 정보관리학회지가 0.54,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0.48의 순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영향지수에서도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가장 높은 0.62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0.58, 정보관리학회지 0.4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0.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간의 영향력은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

〈표 10〉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간의 영향지수(IF)와 KCI 영향지수와의 비교

	2년간(2012-13)		3년간(2011-13)		4년간(2010-13)	
	IF	KCI*	IF	KCI*	IF	KCI*
정보관리학회지	0.58	1.08	0.54	0.99	0.47	0.8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0.47	0.70	0.48	0.72	0.44	0.7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0.58	0.98	0.58	0.99	0.58	0.9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0.67	0.82	0.65	0.78	0.62	0.70

\*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IF는 2013년 기준임

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KCI의 영향지수는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높게 나타났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낮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영향지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도 한국비블리아학회의 인용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주로 인용하는 반면,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문헌정보학분야 이외의 다른 주제분야 학술지에도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KCI 영향지수나 본 연구의 영향지수에서도 모두 낮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학술지 4종을 대상으로 이들 학술지의 영향지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지만, 순수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간의 인용관계만을 활용하여 영향지수를 평가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3.3.10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즉시성지수 분석

즉시성지수는 학술지 논문이 인용에 걸리는 시간 또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 당해연도에 인용되는 횟수를 측정하여 어느 정도 빨리 인

용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즉시성지수는 학문의 변화속도가 빠른 분야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보다는 응용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 학술지에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분야의 논문을 수록하는 학술지의 즉시성지수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보검색, 계량정보학이나 최신 정보처리기법 등의 논문을 많이 수록하는 정보관리학회지의 즉시성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2014년 기준 문헌정보학 학술지간의 즉시성지수와 KCI에서 제시한 관련 학술지의 즉시성지수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정보관리학회지의 즉시성지수가 0.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0.2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0.1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0.06의 순으로 즉시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KCI에서 제시한 즉시성지수도 이와 유사한 순서대로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즉시성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3.3.11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자기인용 비율 분석

자기인용비율은 자기인용횟수에 의해 피인

<표 11> 2014년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간의 즉시성지수와 KCI 즉시성지수와의 비교

	발행논문수	인용횟수	즉시성지수	KCI*
정보관리학회지	48	15	0.31	0.4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75	20	0.27	0.2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71	4	0.06	0.2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58	11	0.19	0.24

\*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즉시성지수는 2013년 기준임

〈표 12〉 2014년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자기인용비율과 KCI 자기인용비율과의 비교

	자기인용횟수	총인용횟수	자기인용비율	KCI*
정보관리학회지	26	65	40.0	31.2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6	61	42.6	21.1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	87	42.5	39.8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	84	30.9	20.72

\*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자기인용비율은 2013년 기준임

용 횟수가 과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하는 지수이다. 2014년 기준으로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A의 자기인용비율은 2012, 2013년에 발행된 A의 논문이 2014년 자기 학술지 A에 인용된 횟수를 2012년과 2013년도에 발행된 특정 학술지 A의 논문이 2014년도 발행된 전체 학술지에 인용된 총 횟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을 말한다.

〈표 12〉와 같이 자기인용비율이 가장 높은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학회지로 각각 42.6, 42.5로 나타났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가장 낮은 30.9로 조사되었다. KCI에서 제시한 자기인용비율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가장 높은 자기인용비율(39.86)을 보였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20.72로 가장 낮은 자기인용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 3.4 연구문제의 검토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상호간의 인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전체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문헌정보학 상호간에 인용이 활

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인용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이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상호간의 인용관계는 학술지가 추구하는 학문적인 수용과 주제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가 추구하는 학문적인 수용과 주제방향은 정보관리학회지는 문헌정보학분야에서도 정보관리분야 즉 정보검색이나 계량정보학, 최신정보처리기법 등에 관한 주제의 논문을 많이 수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나머지 학술지와 학문적인 수용과 주제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보관리학회지는 자기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문의 변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피인용반감기도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서로 추구하는 학문적 방향과 주제가 유사하여 상호간의 인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발행논문이 논문의 생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이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발행논문은 전체 인용문헌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논문의 생산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인용되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는 발행연도가 오래 되지 않은 최신 논문일 것이다.'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는 반감기가 3.57년에서 5.87년까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최신 논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간의 상호인용관계를 토대로 학술지의 영향지수, 피인용반감기, 즉시성지수, 자기인용비율 등을 조사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논문의 위치와 역할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한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에 학술지 논문을 가장 많이 생산한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나타났고, 전체 인용문헌수 또한 한국문헌정보학회가 1,93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학술 논문당 인용문헌의 평균은 정보관리학회가 27.5건, 한국문헌정보학회가 25.8건, 한국비블리아학회가 25.6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2.2건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인용문헌의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국내 주요 학술지의 인용문헌 비율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20.2% 가장 많이 국내 주요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1%, 한국비블리아학회가 18.8%, 정보관리학회가 17.0%의

순으로 나타나 정보관리학회가 가장 적게 국내 학술지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관리학회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가운데 정보관리학회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연구의 순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가운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었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여 자기인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한국비블리아학회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및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상대적으로 밀접한 인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보관리학회의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인용횟수와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정보관리학회의 학술논문 생산에 국내 학술지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용논문의 발행연도 분석에서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의 발행논문은 주로 발행한지 3년 이내의 최신논문이 인용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인용되는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논문은 대부분 5년 이내의 논문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인용반감기는 정보관리학회가 4.25년,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5.87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5.40년, 한국비블리아학회가 3.57년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헌정보학 분야 4종 학술지간의 2년간 영향지수는 한국비블리아학회가 0.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보관리학회지와 한국도서관·

관·정보학회지가 0.58,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0.47로 가장 낮았다. 3년간의 영향지수도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0.65로 가장 높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0.58, 정보관리학회지가 0.54,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0.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즉시성지수 분석에서는 정보관리학회지의 즉시성지수가 0.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0.2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0.1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0.06의 순으로 즉시성지수가 나타났다. 또한 자기인용비율이 가장 높은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로 각각 42.6, 42.5이었

고, 정보관리학회지가 40,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가장 낮은 30.9였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들의 영향력지수와 즉시성지수, 자기인용지수 등 다양한 인용지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분야 4종 학술지를 인용한 모든 학술지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인용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학술지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구자영 (1975). 한국 화학자의 연구정보원: 인용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26, 111-133.
- 김석영 (1983). 한국영양학논문의 인용문헌분석. 정보관리연구, 16(3), 75-98.
- 김순희 (2003). 디자인학분야 문헌의 인용분석 연구. 2003년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김양순 (1984). 원예학 문헌의 인용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정옥 (2015). 의학 분야 전자학술지의 이용통계와 인용지수 비교분석. 2015년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7-82.
- 김태수, 남영광, 최석두 (1999).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을 위한 데이터요소의 기술형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6(2), 183-199.
- 김현 (2005). 외식조리학 분야 연구논문의 인용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외식조리관리학과.
- 김홍렬 (2003). 과학기술문헌의 인용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4), 1-21.  
<http://dx.doi.org/10.3743/KOSIM.2003.20.4.001>
- 김홍렬 (2005). 생명과학 학술지의 인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85-102.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3.085>
- 남영준, 서현정, 김규환 (2011). 우리나라 토목공학분야 연구자의 인용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4), 201-220.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4.201>

- 노현아 (2013).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에 나타난 타 학문분야 문헌 인용 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노현아, 장우권 (2013). 타 학문 분야 간의 문헌 인용 행태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363-38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3.24.4.363>
-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3.379>
- 유경희 (1971). 인용색인. 정보관리연구, 4(1), 128-134.
- 윤석경 (2002). 인용분석에 의한 학문간의 특성 비교연구: 사회·자연과학 8개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윤석경 (2007). 인용분석에 의한 행정학분야 학술지의 특성. 한국공공관리학보, 21(3), 113-139.
- 이윤혜, 이춘실 (2002). 한국 의학학술지의 인용도 및 인용분석지표의 특성 연구. 2002년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73-278.
- 이해영 (1994). 한국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인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1(1), 57-79.
- 이효숙 (1979). 인용 문헌 연구: 한국 미생물학 분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경희 (1999). 인용분석의 발전과 그에 대한 비판. 정보관리연구, 30(2), 53-68.
- 정진식 (1997). 사회과학문헌 인용분석연구: 경제학·문헌정보학·행정학 중심. 정보관리학회지, 11(2), 31-48.
- 조인숙, 한미숙 (2007).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학회지 게재논문과 인용학술지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89-105.
- 조현양, 조현선 (2005). 주요 4개 공학분야 연구자의 문헌인용 행태 연구. 정보관리연구, 36(2), 1-24. <http://dx.doi.org/10.1633/JIM.2005.36.2.001>
- 최상기 (1996). 한국과 일본의 기계공학 분야의 인용분석 비교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2), 121-141.
- 한복희 (1977). 원자력학분야 학술지(국내)의 인용분석. 도서관문화, 18(7), 2-6.
- 한중엽, 권성국 (2008). 해양과학기술분야 전문학술지의 계량정보학적 인용분석 예비연구. 2008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29-234.
- Cronin, B. (1981). The Need for a theory of citing. *Journal of Documentation*, 39(1), 16-24.
- Gross, P. L. K., & Gross, E. M. (1927). College libraries and chemical education. *Science*, 66, 385-389.
- Martyn, J. (1964). Bibliographic coupling. *Journal of Documentation*, 20(4), 236.
- Martyn, J. (1975).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Documentation*, 31(4), 290-297.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 Hyunyang, & Cho, Hyunsun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citing behavior of scholars in four major engineering field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6(2), 1-24.  
<http://dx.doi.org/10.1633/JIM.2005.36.2.001>
- Cho, Insook, & Han, Misook (2007). An analysis on the articles and cited journals suggested by LIS researchers of Korea.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2), 89-105.
- Choi, Sangki (1996). Comparative study on citation analysis in the field of mechanical engineering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3(2), 121-141.
- Han, Bokhee (1977). A study on the use patterns of nuclear science journal: A citation analysis. *Doseokwan Munwha*, 18(7), 2-6.
- Han, Jong-Yup, & Kwon, Seong-Kook (2008). Preliminary study on bibliometric citation analysis of the oceanographic journal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9-234.
- Jung, Jinshik (1997). A study on citation analysis of social science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1(2), 31-48.
- Jung, Kyunghee (1999). A review of the development and critique of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0(2), 53-68.
- Kim, Hongryul (2003). A study on the citation analysis of information resources on science &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4), 1-21.  
<http://dx.doi.org/10.3743/KOSIM.2003.20.4.001>
- Kim, Hongryul (2005). A study on the citation analysis of scholarly journal in the field of life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85-102.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3.085>
- Kim, Hyun (2005). Quotation analysis of food service & culinary management. Master's Thesis, Kyunggi Univ.
- Kim, Jungok (2015). A comparative analysis on usage statistics and citation indices of electronic journals in the field of medicine. *Proceedings of the 24<sup>th</sup>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77-82.
- Kim, Sukyoung (1983). Citation analysis of the nutrition papers in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 Management, 16(3), 75-98.
- Kim, Sunhi (2003). A study on citation analysis of design science literature. Proceedings of the 12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3-243.
- Kim, Taesoo et al. (1999). A study on the description of data elements for the citation index of academic journal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6(2), 183-199.
- Kim, Yangsoon (1984). A study on the citation analysis about horticultural literatur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
- Lee, Yoonhye, & Lee, Choonshil (200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itation analysis indices of Korean medical journals. Proceedings of the 11<sup>th</sup>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3-278.
- Nam, Yiungjun, Seo, Hyun-Jung, & Kim, Gyu-Hwan (2011). Citing behaviors of researchers in Korea civil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4), 201-220.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4.201>
- No, Hyeon-A (2013). A study on bibliographic citation behavior of other academic areas shown in academic journals on Korea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Master's thesis, Chonnam Univ.
- No, Hyeon-A, & Chang, Wookwon (2013). An analysis of the bibliographic citation behaviors of other academic areas: Case study in academic journals of Korea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63-38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3.24.4.363>
- Oh, Sehoon (200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79-408. <http://dx.doi.org/10.3743/KOSIM.2005.22.3.379>
- Rieh, Hyeyoung (1994). Citation analysis in the field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1(1), 57-79.
- Yoon, Sukkyung (2002). Comparative research on the disciplinary specialties by citation analysis: Focused on 8 fields of social · natural science. Ph D. Dissertation, Kookmin Univ.

